

한국지역학회 회보

발행인: 이원섭 편집인: 손민수, 강현철, 송영현, 유예진, 서동주, 최재용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2 부산대학교 건설관 719호
전화: 010-6643-2159 | E-mail: krsa83@krsa83.or.kr | Homepage: http://www.krsa83.or.kr

회원기고

도시재생사업의 쟁점과 과제

20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년 12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0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도시재생을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사업대상의 규모와 예산 등을 확대하여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등 현재까지 총 460곳을 선정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선정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혁신지구, 인정사업, 총괄관리자제도 등의 신규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의 전환, 사업유형 및 선정방식의 변화 등 기존 사업의 한계를



강 현 철 교수
경기대학교

보완하고 사업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현장 곳곳에서 갈등과 불멘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특정지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공공 재개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참여 주체마다 인식하고 있는 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연 도시재생의 범위가 기존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떠한 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도시재생을 받아들이는 주체, 대상, 방법, 적용 등의 일련의

안 내

2021년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 접수 : 10월 7일 ~ 11월 7일, 온라인 접수

2021년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한국지역학회 세션

■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13:00~14:30

■ 장소 : 안동대학교

과정상에서의소통의 부족이 현재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시민운동을 통해 지역의 이슈를 발견하여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공공의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를 운동은 운동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이론은 이론대로, 각각 받아들여 그것이 진리인 듯 적용하는 측면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와 공공주도방식 간 미스매칭이다. 최근 몇 년간 도시재생사업 관련 국비 예산 집행률은 절반이 넘는 선에서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사업 선정기준에 이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참여가 필요하지만 3-4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실행되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재생 유관사업 간 개념적 혼선과 방향성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기존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사업 등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어촌 뉴딜 300사업,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등 콘텐츠와 공간적 특성은 다르지만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다는 점이다. 셋째, 차별화되지 않는 콘텐츠이다. 그동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살펴보면 청년, 문화, 예술, 주거, 벽화, 생활 SOC, 스마트시티, CRC(도시재생 회사) 등의 용어가 중복되어 난립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의 원래취지인 면밀한 지역자산조사를 통한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출구전략으로서 다수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기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CRC(도시재생 회사)를 설립하여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공통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운영인력의 지속가능성과 정책효과이다.


전국적으로 사업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수와 처우가 불안하여 사업추진의 잠재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에 관한 것이다. 도시재생의 결과물은 사업선정에 있는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가에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수단이 아닌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사업의 쟁점을 단기간에 해결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이러한 쟁점과 한계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의 영역을 넓혀 많은 전문가들과 참여주체들이 논의하여 지역과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즉 지역과 도시공간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려면 사업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한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등에 더 부합한지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평가결과를 공공과 주민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기존 지역자산과 새로운 자산을 발굴하여 민관이 협업하여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상당기간의 노력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저 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맹목적인 경쟁을 통해 중앙정부예산을 획득하는 사업으로만 인식된다면 사업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그 지역과 주민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도시재생은 기존 물리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목표가 바로 ‘하모니(harmony, 조화)’라고 판단된다. 시간, 공간, 그리고 조직,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이루어 꼭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지역정책위원회] 2021년 균형발전정책박람회 세션 개최

- 2021년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한국지역학회 세션 운영
 - 일 시 : 2021년 10월 28일(목) 13:00~14:30
 - 장 소 : 안동대학교
 - 주 제 : 전환기의 지역정책 방향
 - 발표/토론
 - 발표 1 :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지역의 미래전략 (김영룡 박사, 경기연구원)
 - 발표 2 : 혁신도시 시즌2와 지역전략의 방향 (정정석 박사, 대전세종연구원)
 - 좌 장 : 최성관 교수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 토 론 : 하수정 박사 (국토연구원), 김동현 교수 (부산대 도시공학과), 김은정 교수 (계명대 도시공학과), 오용준 박사 (충남연구원)

 [편집위원회] 2021년 지역연구 발간 현황

- 2021년 『지역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현재 총 13편입니다.
 - 3월호 4편 게재
 - 6월호 5편 게재
 - 9월호 4편 게재

<지역연구 9월호 게재 논문>

투고자	소속기관	논문명
박기웅·김동현	부산대학교	동남권 지역의 지식 간 연관성 밀도와 기술 복잡성 측정에 관한 연구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수도권 거주가구의 주거면적 변화 결정요인:수도권 내 주거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미영·강명구·최준열	경기도교육연구원	지역분석을 통한 폐교 활용 방안: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승욱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정책 초기의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제학술위원회] 2021 Asian Seminar in Regional Science 개최

- 제11회 아시아 지역학 학술대회(Asian Seminar in Regional Science) 개최


구 분	내 용
행 사 명	2021 ASIAN SEMINAR in REGIONAL SCIENCE
주 체	Regional Science in the Post-Pandemic Era
날 짜	2021-10-08 ~ 2021-10-09
장 소	Feng Chia University, Taichung, Taiwan
공식 웹사이트	https://www.11thasrs-fcuupsi.com/

- Contact Point

INTERNATIONAL CONTACT DETAILS	LOCAL SECRETARIAT CONTACT DETAILS
Yung-Chung Chuang (Feng-Chia University) Email : yungcchuang@fcu.edu.tw Phone : +886-4-2451-7250#3350 Fax : +886-4-2451-7278	An-Ming Wang (National Taipei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 amwang@mail.ntue.edu.tw Phone : +886-2-2732-1104#55072 Fax : +886-2-2736-5540

[총무위원회]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 제3차 한국지역학회 상임이사회가 2021년 7월 22일(목) 10시 온라인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 후기 학술대회 개최
 - 개최 : 2021년 12월 3일(금)
 - 접수 : 10월 7일 온라인 접수 시작, 11월 7일 논문접수 마감
 - 학술위원회 및 학술상위원회가 협의 하에 사전평가 및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논문상을 선정할 계획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full-paper에 대해서 선정, 연장기간 내 제출 미포함)
 -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해 학회지를 발송을 확인할 예정 (최근 2년 이내 연회비 납부 및 평생회원 대상)

 2021년도 연회비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액
개인회원	입회비	1만원
	정회원	4만원
	준회원(학사 학위자 및 석사과정 재학)	2만원
	평생회원	50만원
단체회원	일반기관(연구원, 회사, 기타)	30만원
	교육기관(학교, 도서관)	10만원
이사회 기부금 (연회비 미포함)	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원
	임원진(상임이사 및 감사, 고문)	10만원
	일반이사	10만원

1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 학회 계좌로 직접 회비 이체 (국민은행 630337-01-001302,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지역학회)
- 이체 시 입금자명(등록 회원명) 입력 필수

2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 학회 홈페이지(<http://www.krso83.or.kr>)의 학회비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회원관련 > 학회비 결제' 순으로 접속)